

#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다시 만나는 축제

### 4년만의 개최 광양매화축제 10~19일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홍쌍리 명인 요리교실·야간 조명...500만원 '황금 매화' 경품 전남·경남 지자체 '섬진강 관광시대' 선포...연계 홍보 본격화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향긋한 매화 향기가 광양 곳곳에 스며든다. 광양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22회 광양매화축제'를 개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기존 광양지역 매화 개화율은 50%로, 축제 시작 날이면 꽃이 만발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주제를 내건 이번 축제는 4년 동안 대면 개최를 기다린 만큼 차별화를 꾀했다.

우선 광양과 구례, 곡성, 하동 등 섬진강을 끼고 있는 전남·경남의 4개 지자체가 개막식에서 '섬진강 관광시대'를 선포하며 연계 관광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황금 매화·매실 GET(갯)'이다. 지역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500만원 상당 '황금 매화'와 태블릿PC, 소फल(LF) 상품권 경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9일부터 20일까지 숙박업소·식당 등 지역 사업장에서 3만원 이상 영수증에 이력과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 축제장과 시청, 12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15개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매실 보고장담게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사진 촬영과 매화꽃집을 소재로 한 배경음악(BGM)을 만날 수 있다.

홍쌍리 명인이 직접 나서는 요리 교실 '홍명인의 매(實)·삼(心)·심(心)'은 관광객의 오감을 충족해줄 예정이다.

매화마을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 '광양시티투

어' 등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밤에도 매화꽃밭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도 숙박 할인'과 '1박 2일 캠핑' 등을 도입해 '머무르는 여행' 환경도 조성했다.

축제장 안에 있는 두꺼비 공원에서는 청년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11일, 12일, 17일, 18일,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두 27개 팀이 대중음악과 국악, 춤 등 다양한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축제장에서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할인 판매와 시식 행사도 열린다.

광양시와 순천광양축산농협, 한우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과 11~12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진행된다.

구이용 등심, 국거리용, 불고기용 한우고기 등 1등급 이상 한우고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휠체어와 유모차를 비치해 관광객 편의를 높였다.

시는 축제 기간 주말(오전 8시~오후 6시) 둔치와 도사주차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날마다 광주와 광양터미널, 매화마을을 잇는 40인승 버스가 3회씩 왕복 운행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 출발은 오전 9시, 10시, 11시이다. 광양터미널에서는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오후 12시 20분에 탑승할 수 있으며 축제장까지는 총 2시간 안팎 걸린다. 매화 축제장에서 버스는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4시에 출발한다.



'22회 광양매화축제'가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광양시 제공>

광주에서 출발하는 승차권은 터미널 매표소 및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며, 매화축제장을 떠나는 승차권은 축제장 간이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 요금은 광주-매화축제장 1만2700원, 광주-광양 8000원, 광양-매화축제장 4700원으로 청소년 20%, 아동 50%, 국가유공자 30~70% 등 할인이 적용된다.

축제장 혼잡을 막기 위해 행사 기간 섬진강 둔치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도사주차장(다압면 도

사리 77)과 섬진주차장(도사리 산 82)은 평일엔 무료, 상춘객이 몰리는 주말엔 유료로 전환한다. 주행사장과 가까운 매화주차장은 축제 기간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3시간 기준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는 1만2000원(3시간 초과 때 30분당 1000원)이다. 요금을 내면 각각 5000원과 1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차장 인근에는 섬진강의 풍광이 돋보이는 유럽형 벚꽃시장 '리버마켓+섬진강'을 조성해 분위기

를 돋운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매화 개화율 등 정보는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gwangyang.go.kr/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의 봄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광양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여 왔다"며 "4년 만에 열리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전남대표축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내용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노르딕워킹 교육(왼쪽)과 주민들의 건강교실 수업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 건강교실 수업 모습. <순천시 제공>

## 누구나 즐기는 '건강도시 순천' 만든다

### 9월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지자체 101곳 500여 명 참여

'202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열리는 순천시가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맞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9월 9일 개막 예정이다. 건강도시 회원 101개 지방자치단체 500여 명이 순천을 찾는다.

참가자들은 건강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박람회 행사장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가 합해진 '웰니스'는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

순천시는 지난 2006년 순천만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국가정원과 동선을 따라 도심정원으로 '웰니스'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와 운동 시설 등 건강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는 '시민 걷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매일 1만보 걷기 도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올해는 맨발 걷기와 '웰니스 노르딕 워킹' 등 다양한 걷기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웰니스 노르딕 워킹은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철에 훈련하는 방법으로, 노르딕 폴을 활용해 걷는 운동이다. 순천에는 와온 해변과 순천만 습지, 화포 해변을 아우르는 남파랑길 61코스가 노르딕 워킹 동호인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시는 8주 교육과정으로 시민 25명 수강생을 모집해 지난달 8일부터 용당 동천 수변공원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는 총 길이 12km의 맨발 걷기 좋은 8개 지역이 있다.

순천시는 이른바 '어싱길'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4주 과정 교육을 벌인다. 전문 강사가 이곳에서 걷기

명상과 장생 보법 걷기 등을 소개한다.

시는 고혈압과 당뇨, 국가 5대암, 치매, 정신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별 예방관리를 강화해 순천 시민 건강 수명을 2050년까지 82.8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순천 시민 건강 수명은 71.8세로, 대한민국 평균 70.4세를 웃돌고 전국에서 33번째로 많았다.

10대 사망 원인을 중심으로 투입되는 시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198억원에 달한다.

고혈압과 당뇨는 가까운 동네 의원 29곳에서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 24시' '구강 보건 이동 진료 차량' 2대를 운행한다.

시는 해마다 시민 1000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태수도 일류 순천의 도시 목표"라며 "대한민국에서 표준이 되는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보성녹차산업특구' 방문

보성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단장 백운만)이 보성녹차산업특구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특구기획단은 보성녹차산업특구를 찾아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등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007년 보성읍, 회천면, 웅치면 일원은 '보성녹차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차(茶)와 연계한 기업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2014년, 2019년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구에 있는 북채 그린다향과 그린마켓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4억4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누적 방문객 수는 8만2959명을 기록하며 개장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올해 개관 2년차를 맞은 다향아트밸리는 '차 문화 복합단지'로 보성 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에는 녹차 아웃렛과 녹차 판매장, 녹차 카페, 녹차 감지 가게 등 체험형 매장이 들어섰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단장 백운만)이 보성녹차산업특구를 방문했다. <사진> 특구기획단은 보성녹차산업특구를 찾아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등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 뚝방마켓' 토요일로 소풍 가자

### 매주 토요일 개장

곡성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벼룩시장 '곡성 뚝방마켓'이 오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다.

지난 2016년 시작한 곡성 뚝방마켓은 오는 토요일 131번째 장터를 연다.

뚝방마켓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천변(읍내리 832-29·사진)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뚝방마켓은 영문천과 곡성천을 끼고 있어 나들이객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 장터는 토끼의 해를 맞아 '올해도 뚝방마켓으로 경중경중 소풍가자'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거리 공연과 가족 운동회, '물과 함께', '넌과 함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올 하반기에는 '추억으로 뚝방, With(위드) 뚝방'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장터가 열리는 300m 뚝방 거리에는 60곳 넘는



곡성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벼룩시장 '곡성 뚝방마켓'이 오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 여수항 개항 100년 기념주간...미래 100년 비전 제시

### 4월 1~4일 이순신광장서 행사

여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을 개항 10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23년 4월 1일 세관지정항으로 문을 연 여수항의 개항 10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여수항 100주년 기념 주간'을 마련했다. 기념 주간 첫째 날인 1일은 이순신광장에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여수항 타임캡슐 매설식', '기념식수', '해양 유공자 시상', '여수항 미래100년 비전선포 퍼포먼스 및 세리모니',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후 4일까지 기념 주간동안 '여수항 사진전 기념 뮤지컬', '섬 박람회 등 시정홍보관 운영', '어

린이 만들기 체험', '드론 체험', '메타버스 체험관', '요트 승선 체험'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3월 시민과 함께 만드는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100인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또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여수항 관련 자료 수집과 개항 100년사 발간 등 단계적 8건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항만 친수공원 조성 등 중장기 과제 9건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